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이 어린 첫삽



락원의 강으로 전변된 보통강



토지정리로 전지개혁된 어리리밭



인민의 웃음 넘쳐나는 문수물놀이장

지난 3월 평양종합병원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을 울린 감동적인 연설을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몸소 착공의 첫삽을 쓰시었다. 몸소 건설의 첫삽을 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엄하신 모습, 그이의 곁에 서서 기쁨의 웃음지으며 삼으로 흙을 떠옮기는 일군들, 허공에 뿜다 사뿐 떨어지는 흙, 봄바람에 흩날리는 보얀 흙먼지들...

그 가슴뜨거운 화폭을 보며 이 나라의 남녀로소 누구나 눈시울을 적시었다. 비록 한상의 사진문헌이지만 조선의 정치를 알게 하고 정도자의 품포를 알게 해주는 뜻깊은 사진문헌이었다.

삼, 인류사회의 발전과정에 창조와 건설을 위해 삽이 나온지도 이루 헤아릴수 없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한삽에 그처럼 큰 력사의 무게가 실린적이 고금동서에 과연 언제 또 있었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쓰신 첫삽, 그것은 인민사랑의 크나큰 첫삽이었고 만민의 쾌일을 더욱 성큼 앞당겨오게 하는 건설의 첫삽이었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력사에는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첫삽을 쓰시고 현지지도의 날과 날들을 보내신 절세위인들의 애민헌신의 모습들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무리처럼 무수히 간직되어있다.

그 잊을수 없는 첫 화폭이 오늘도 사진문헌과 영화화면을 통해 길이 전해지는 해방후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오시어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고 대자연개조의 첫삽을 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숭엄하신 모습이다.

해방전 보통강은 해마다 정마월에 조금만 비가 내려도 큰물이 쳐 《토성량》과 서명양 및 대태령일대는 온통 물바다가 되었고 인민들은 물만리를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42년에 이른 큰물때만 하더라도 성안의 5만 여명의 주민들이 인명피해를 비롯한 많은 피해를 당하였으며 주변의 2 000여정보의 농경지와 1 000여호의 농가가 물에 잠겨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그이께서 쓰신 착공의 첫삽이 그대로 인민의 애국열의를 북돋아주어 보통강개수공사는 단 5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나게 되었다. 그후 보통강주변에 인민을 위한 얼마나 많은 창조물들이 키들움하며 솟아올랐는가. 도처의 유원지들과 친리마거리, 락원거리, 창평원과 청류관, 빙상관, 인민문화관, 평양체육관...

이 이 땅 그 어디에나 력력이 아로새겨져있다.

이 땅에 펼쳐진 황금산, 보물산의 새 력사도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의 모란봉과 문수봉에서 몸소 나무를 심으시면서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인민의 재부로 전변시켜주시려 마음써오신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뜻과 위업을 받들어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었다.

그이의 애민헌신속에 대규모 모적인 토지정리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자연호흡식 물길들이 대지를 뿔어나갔으며 구월산, 칠보산을 비롯한 많은 명승지들과 명소들이 인민의 유원지로 더욱 훌륭히 꾸러지고 주체철, 주체비날론곡조가 울려 부강조국건설의 토대가 더욱 튼튼해졌다.

진정 공화국의 훌륭한 력사는 절세위인들께서 인민을 위해 바치신 사랑과 헌신의 력사, 현명한 령도의 력사이다.

수도과 지방, 공장과 농촌, 어촌, 두메산골 그 어디에나 인민을 위해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애민헌신의 땀방울이 스며있지 않은데가

없다. 백두산위인들의 끝없는 인민사랑으로 인민의 세상, 행복의 락원이 일떠서고 그 현명한 령도의 손길들에 받들려 공화국은 날로 키들움하며 자기의 발전을 앞당겨왔다.

그 인민사랑의 창조물건설을 위한 《첫삽》을 오늘날은 백두산위인이며 인민사랑의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복받은 이 대지에서 또다시 쓰신것이다.

지난 몇년여간에 무수히 일떠선 인민사랑의 창조물, 재부들에는 어느것 하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색과 실험, 로고와 헌신이 깃들여있지 않은것이 없다.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안겨주시려는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높은 리상에 받들려 마시령 스키장과 미림승마구락부도 태어났고 누구나 갈망하고 부러워하는 령명거리의 물론이고 산간문화도시의 표준으로 된 삼지연시, 양덕온천 문화휴양지의 별천지와 같은 모습들도 펼쳐져있다.

은 나라일을 돌보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문수물놀이장의 형성안만도 무려 113건을 지도하여주시고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형성안은 무려 2 000여건이나 보아 주시였으니 그이의 애민헌신의 손길이 어려있지 않은것이 없어 행복의 웃음속에 격정의 눈물을 짓는 공화국인민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에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평양종합병원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쳐시고 착공의 첫삽을 쓰신데는 오늘의 정면들과 전을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로 일관시키며 사회주의보건을 전체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중진시키는 가장 인민적이고 선진적인 보건의료 발전시켜나가기려는 인민의 어머니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착공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의 본성으로, 신성한 정치리념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진시키는것은 조선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결매지고 실행하여야 할 최급선우이며 또한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으로 된다고 하시었다.

언제나 인민을 생각하고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한길만을 걸어가는 현재의 위인을 모시어 이 땅에서는 기쁨과 행복의 웃음이 날로 커지고 인민사랑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려어 태어나고 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새로 일떠서게 될 평양종합병원

매혹과 흥미

정깊은 미소, 따뜻한 인정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특출한 위인상에 대해 룬할 때 누구나 감동깊게 이야기하는것이 그이께서 지니신 뜨거운 인정미이다.

인정미는 인간의 향기와도 같은 것이다. 아름다운 꽃도 향기가 있어야 벌들이 날아드는것처럼 사람도 인정미가 있어야 품격이 돋보이고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끌려들게 되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신 한없이 친근한분이다.

그이께서는 물고기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실 때에도, 삼복의 폭염속에서 인민들이 리우할 새형의 무개도전차를 보아주시는 때에도 햇빛같은 미소를 지으시었고 질 좋은 학습장들을 받아 안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흠이래도 추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시며 몸소 《세상에 부럼없어라》라는 글발을 남기실 때에도 시종 환하게 웃으시었다.

정녕 공화국인민들이 사는 그 어디에서나 봄빛같은 그이의 정깊은 미소를 볼수 있고 그이의 따뜻한 시선을 때루로 느낄수 있다.

그 따뜻한 미소에서 인민들은 자신께서 겪으신 천만고생은 고스란히 묻어두고 인민들에게만 안겨줄 행복의 선물이 마련되는 기쁨의 그 순간이 찾아올 때면 그리도 무한한 희열의 세계에 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보다 뜨거운 인정미를 가슴부풀게 안아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천여비의 사랑과 같이 온 나라 인민을 따사로온 환풍에 안아보살펴주는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일수록 더욱 마음을 쓰고 따뜻이 감싸안아주며 일으켜세워주는 뜨겁고 열렬한 사랑, 더고 정으로 인민들을 보살피고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사랑속에 온 나라 인민

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혈연의 정을 맺고 허물없이 마음을 터놓고있다.

어찌 그뿐이랴. 그이께서는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들을 잃으면 억장이 무너지는것만 같은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신다. 뜻밖에 희생된 한 전사의 얼음장같은 얼굴을 쓰다듬으시면서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해주었는데 그 진정을 받아주시지 않고 우리결을 떠났으니 너무도 무정하다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일군들이 이렇게 하나둘 우리결을 떠날 때마다 가슴이 못 견디게 쓰리고 아프다고 하시며 솟구치는 눈물을 걸잡지 못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은 행복한 인민들의 모습을 보실 때면 눈부시도록 환한 웃음을 짓곤 하시지만 눈물 또한 맑은분이다.

그이의 고결한 인정미에 대해 말하자면 끝이 없다.

오늘 세상사람들은 적대세력

들의 제재압박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공화국의 막강한 국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허나 그 거대한 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잘 알지 못하고있다.

이에 대한 답은 몇해전 뜻밖의 재앙앞에서 한 로인이 러친 진정의 말에서도 읽을수 있다.

《당에서 다 돌보아주는데 그 까지 집을 잃어버린것이 무슨 대수겠소. 단지 제일 큰 근근은 인정에 무신 우리 원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또 주무심을 잊고 얼마나 가슴아파하실가 하시는 것이요.》

인민의 불행앞에서 가장 큰 아픔을 느끼시고 인민이 좋아하면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정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아는 온 나라 인민이기에 누구나 그이를 한마음한뜻으로 따르고 그이품에 스펀없이 안겨들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유급주

이 뛰어난 옷자락과 구두를 적시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서도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애민헌신의 로고속에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집집에 더욱 넘쳐나게 되었다.

찬바람, 눈비도 아랑곳하지 않고서도 애민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며 행복의 창조물들과 인민들의 기쁨넘친 모습들을 보실 때면 온 세상을 얻으신듯만들어 환한 웃음지으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는데, 인민을 위해 사시고 인민의 행복에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는 인민의 령도자.

인민은 그이를 따르고 그이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산다.

최성일

오늘과 래일을 다같이 안고

공화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정면들과전이 과감히 전개되고있다.

삼지연시 꾸리기 3단계공사, 순천리비도공정건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단천발전소건설과 같은 방대한 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있으며 금속, 석탄, 전제공업과 경공업부문 등에서 련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강원도, 평안북도 를 비롯한 지방들에서 농산과 축산, 교육과 보건, 경공업부문들이 발전하고있다.

국가와 인민이 힘차게 전개하는 정면들과전의 위력은 필승의 신념과 자력자강의 힘에 있다.

오늘의 전진과 래일의 승리에 대한 믿음 없으면 부닥치는 난관과 도전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정면들과전을 생각할수 없다.

사람이 신념이 없거나 의지가 약약하면 래일에 대한 희망은 고사하고 눈앞의 어려움이나 고난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하며 물러앉게 된다.

신념은 미래를 본다고 한다.

신념이 강하면 자력자강의 힘도 백배하여진다.

주제 105(2016)년 4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필승의 신념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칠때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체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신념이 강해야 한다고, 신념의 강자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가는 길은 정의 길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자력자강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혁명을 전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앞잡이행동을 분쇄하고 승리하는 길은 자기 힘을 키우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자명한 리치이다. 그 누구도 발전의 길을 선사하지 않는다.

자력자강의 정신이 강하면 어떤 도전도 용용히 물리치고 화를 복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공화국의 전 력사를 통하여 힘있게 확증된 진리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2월전진회의에서도 오직 혁명임무를 스스로 걸머지고 수행하려는 높은 책임감, 오늘과 래일을 다같이 안고 정확히 개척해나가는 지혜와 용기만이 우리 위업을 성공적으로 떠밀어나갈수 있다고 하시었다.

오늘만이 아니라 희망찬 래일까지도 내다보는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가질 때 비산한 지해도 생기고 용기백배한 힘도 분출하게 되는것이다. 자력자강, 자력자강의 길이 넓어지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전진속도도 그만큼 빨라지게 될것이다.

새로 일떠선 삼지연시와 대규모의 증평남새은실농장도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도 전을 높여 받들고 밝은 래일을 그려며 오늘의 정면들과전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필승의 신념과 의지에 넘쳐 오늘과 래일을 다같이 안고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인민에게는 밝은 전도와 양양한 미래가 있다.

본사기자 리 설

순간에 속이 몽클해오는 행복이라시며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몽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어보려고 할때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 것 같다고, 우리 인민들이 매일 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함

에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을 더 잘해나가는 글발을 남기시었다.

이 글발에는 인민의 행복넘친 모습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는 그이의 행복판이 비껴여있다.

물고기잡이를 위한 고기배들

무어 수산사업소에 보내주도록 하고서 어선의 이름을 풍요한 가을처럼 바다에서도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라는 의미에서 《단풍》이 되시었다. 행복의 창조물들과 인민들의 기쁨넘친 모습들을 보실 때면 온 세상을 얻으신듯만들어 환한 웃음지으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는데, 인민을 위해 사시고 인민의 행복에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는 인민의 령도자.

인민은 그이를 따르고 그이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산다.

최성일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끼어 호뜻하고 즐거운 상태를 행복이라 할수 있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의하여 공화국의 인민들은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어느해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의 생활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주시었다. 물고기처럼 활기찬 아이들이, 공기배들은 물고기

를 날라가는 과학자가족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었다.

그 사진들을 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연할수 없는 회월에 넘치신듯 정말 이런 멋에,